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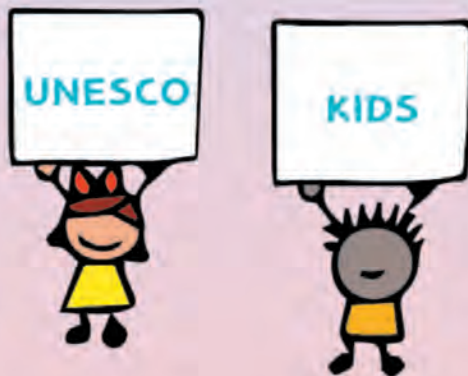
## 인사말씀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우리 어린이들을 장차 세계시민,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제1기 유네스코 키즈들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직접 어린이들을 만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2015년에 제3기 유네스코 키즈들이 탄생했고, 앞으로 제4기, 제5기 키즈들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저는 20년, 30년 후 이 유네스코 키즈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어나갈 '제2, 제3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는 행복합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는 미래가 밝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결심할 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5. 5.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동석



## 차례

### 01 프로그램 개요

- 10 사업목적
- 11 사업개요
- 13 추진일정
- 14 참가자 모집 및 선발

### 02 세계시민캠프

- 22 세계시민캠프 개요
- 23 생활 및 준비사항
- 24 유네스코 평화센터
- 26 참가자 명단
- 30 조편성
- 31 발대식
- 35 전체일정
- 36 세부일정
- 49 모의 유네스코 총회
- 54 수료식





### 03 자기주도학습

58 자기주도학습 개요



### 04 해외현장학습

- 62 해외현장학습 목적
- 63 해외현장학습 개요
- 64 참가자 명단
- 66 전체일정
- 67 발대식 & 사전워크숍
- 70 세부일정
- 91 유네스코 키즈 3기 활동 후 나의 변화 그리고 나의 꿈







# 1. 프로그램 개요

---

## 사업목적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이며,  
최근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같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반기문 사무총장과 같이 차세대 국제평화와 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면서도  
잠재력 있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한편,  
대학생들을 어린이들의 멘토로 참여시켜  
대학생들의 국제역량 강화 및 국제기구  
진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제3기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UNESCO-Kids Programme)

### 기간

- 세계시민캠프 - 2015년 8월6일 - 8월10일 (4박5일)
- 자기주도학습 - 2015년 9월 - 2015년 12월 (4개월)
- 해외현장학습 - 2016년 1월17일 - 1월22일 (5박6일)

**장소** 서울, 경기도, 태국 방콕 등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 기아자동차

### 참가자

- 세계시민캠프 -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99명 & 대학생 멘토 16명
  - 해외현장학습 - 세계시민캠프 활동 우수 초등학교 25명 & 대학생 멘토 5명
- ※ 세계시민캠프 및 해외현장학습 전액 무료,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유네스코학교 재학생 30% 이상 선발

### 주요내용

- 세계시민캠프 - 평화환경교육, 국제기구 특강, 세계유산 답사,  
모의유네스코 총회 등
  - 해외현장학습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방문 및 활동 견학,  
태국 세계문화유산 답사,  
태국 현지 유네스코학교(ASPnet) 방문 및 교류 등
- ※ 당초 프랑스 파리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해외현장학습 시행 예정이었으나,  
2015년 11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lam State(IS)의 파리 테러로 해외현장학습  
지역이 태국 방콕으로 변경됨.

## "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리더 "

### 이 세계시민캠프

여름에 개최되는 세계시민캠프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기르며 글로벌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 문제들에 대한 학습과, 환경, 문화, 평화 등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체험활동, 한국에 있는 세계유산 답사, 그리고 모의유네스코총회 등을 통하여 각 주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 02 자기주도학습

세계시민캠프 이후 겨울 해외현장학습 전까지 평화, 환경, 유네스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실생활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직접 실천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 03 해외현장학습

해외현장학습 참가자들은 실제 국제기구 실무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평화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세계 문화유산을 답사하게 됩니다. 해외현장학습은 세계시민캠프와 자기주도학습을 마친 참가자들이 세계라는 더 큰 무대를 발견하고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추진일정

날짜	내용	비고
6월17일~26일	참가자 신청접수	학교장명의 전자공문 접수
7월 10일	세계시민캠프 합격자 발표 (어린이 100명, 대학생 16명)	키즈 홈페이지
8월6일~8월10일	발대식 / 세계시민캠프 실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 유네스코 평화센터
8월28일	해외현장학습 합격자 발표 (어린이 25명, 대학생 5명)	키즈 홈페이지
9월~12월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진행	이메일 및 키즈 카페
1월17일~22일	해외현장학습 실시	태국 방콕 등



##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3기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세계시민캠프 프로그램 참가자로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전국의 5천여 개 초등학교에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과, 학생 추천 요청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725개 학교에서 1208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제3기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세계시민캠프 활동을 통해 이 가운데에서 자체 심사 및 외부전문가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해외현장학습 참가자 2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태국 방콕으로 5박6일 일정의 해외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해외로 떠나기 전 약 4개월 정도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 세계시민캠프 참가자 선발

### 모집대상

전국 5학년~6학년 초등학생

### 선발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

1. 지원서 - 기본인적사항 등
2. 자기소개서 - 장래희망, 지원동기 등
3. 교사추천서 - 현재 담임교사,  
우대사항 해당여부
4. 학교장추천서 - 전자공문으로 갈음

### 선정과정

1. 선정원칙
  - 지역별 형평성 및 성별 균형 고려
  - 참가자의 다양성 고려: 다양한 관심분야 및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고루 선발
  - 동점일 경우 유네스코활동 경력자 선발

### 2. 우대사항

-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유네스코학교(ASPnet) 재학생 최소 30% 이상 우선 선발

우대사항		세부내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제적 배려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수급자</li> <li>• 차상위계층</li> <li>•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어린이</li> </ul>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li> <li>• 북한이탈주민 자녀</li> </ul>
유네스코 활동경력	유네스코학교(ASPnet) 활동에 1년 이상 적극 참여한 어린이 등	

## 해외현장학습 참가자 선발

세계시민캠프 종료 후 우수 참가자 25명에게 해외현장학습 기회 부여

### 모집대상

세계시민캠프 참가자

### 선발방법

세계시민캠프 활동 평가 및 개별 면접, 에세이 평가

### 심사항목

1. 생활태도 2. 모의 유네스코 총회 활동 3. 에세이 4. 개별면접

### 평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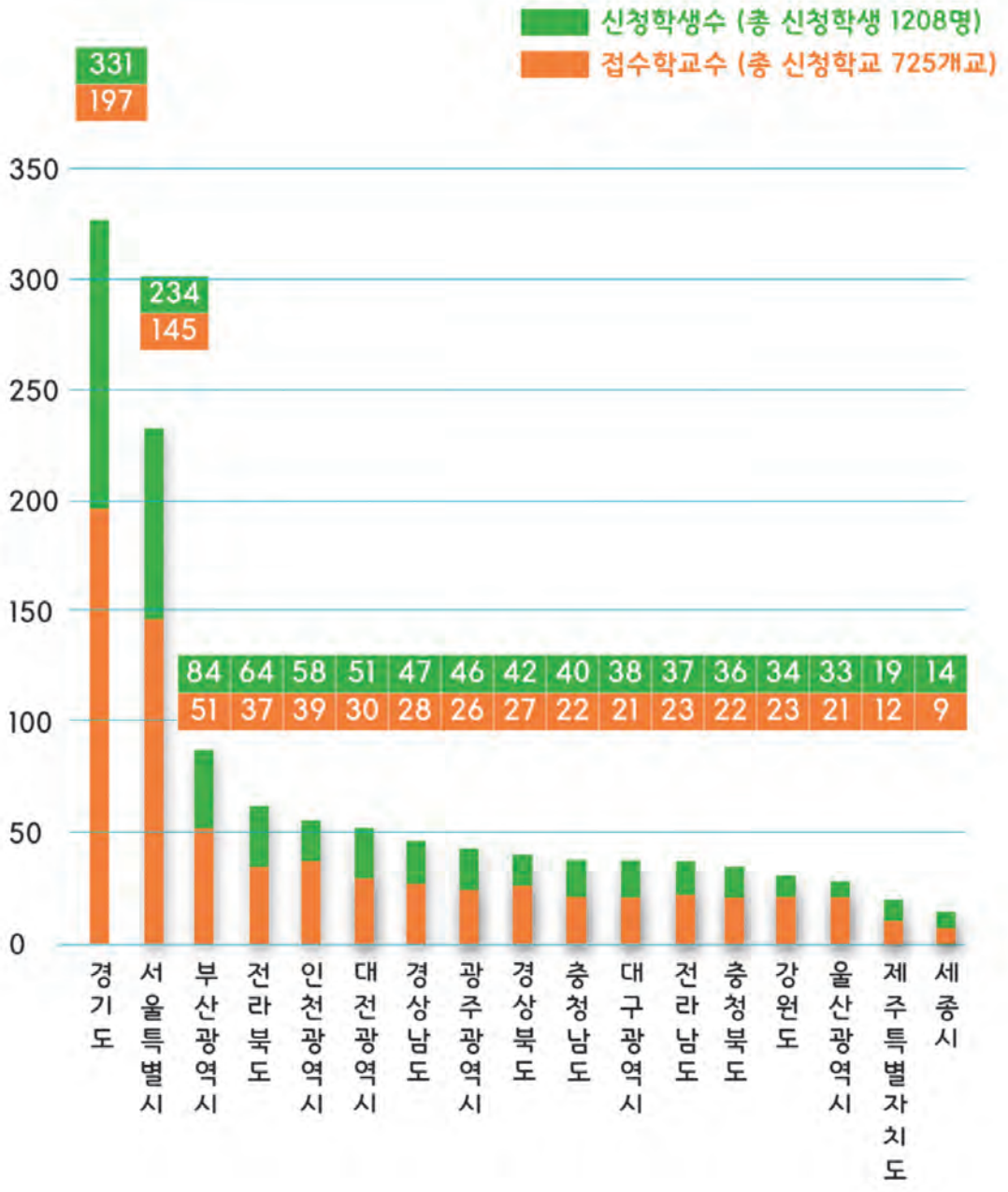
1. 세계시민캠프 생활태도: 대학생 멘토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2. 모의 유네스코 총회: 어린이 참가자 전체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3. 에세이: 외부심사위원
4. 인터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 선발 및 평가 기준

1. 세계시민캠프 생활태도 (40점) - 성실성, 협동심, 적극성, 배려심 등
2. 개별면담 및 인터뷰 (20점) - 프로그램 지원 동기 및 향후 참여 의지 등
3. 모의 유네스코 총회 발표 (20점) - 발표 내용 및 발표 자세, 팀내 협동심 등
4. 에세이 평가 (20점) -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창의성과 논리성 등

\* 모의유네스코총회 최우수발표 4개팀은 (주제별 2개팀) 전체 팀원에게 가산점 부여

## 제3기 유네스코 키즈 서류지원자 지역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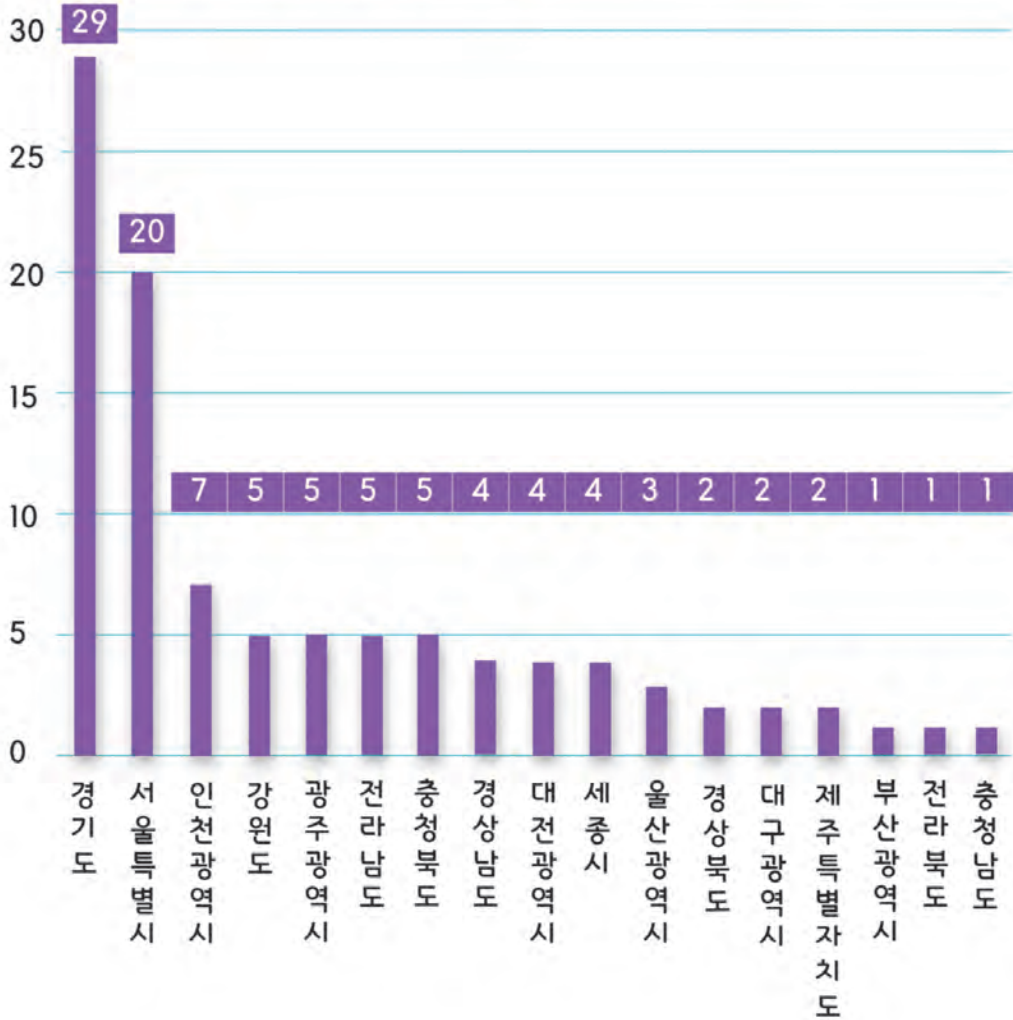
## 제3기 유네스코 키즈 세계시민캠프 참가자 지역별 통계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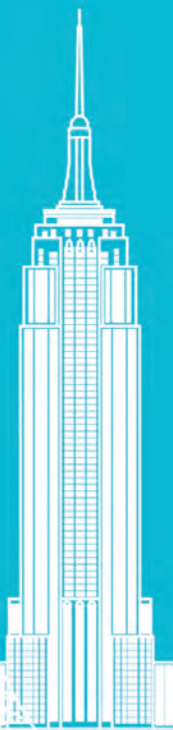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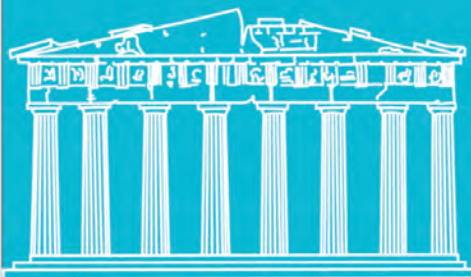
\* 성별 구분 : 여학생 58명, 남학생 42명

\* 학년 구분 : 5학년 28명, 6학년 72명

지역별 참가자수











## 2. 세계시민캠프

---



## 세계시민캠프 개요

### 기간

2015년 8월6일(목) ~ 8월10일(월)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 평화센터

### 참가자

전체 126명

(어린이 참가자 100명, 대학생 멘토 16명, 관계자 10명)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 등 국제기구조직 및 활동 안내
- 빈곤, 환경, 국제매너, 평화 등 국제현안 강의 및 질의응답
-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만들기
-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견학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종대왕릉 답사
- 모의 유네스코 총회



## 생활 및 준비사항

### 준비물

- 여러 번 갈아입을 수 있는 여분의 옷 및 충분한 양의 속옷과 양말,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수건 외 세면도구.
- 실외 활동을 위한 모자, 우천시를 대비한 우산 및 우비 등.
- 체육 활동을 위한 운동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샌들과 슬리퍼.
-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위한 단정한 옷 (와이셔츠, 치마, 긴바지 등).
- 핸드폰, MP3, 디지털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비상금은 1인당 20,000원이 넘지 않게 해주세요.
-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 소지품 분실 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으니 물건의 보관 및 관리에 유의해주세요.

### 숙소

- 유네스코평화센터 상생관에서 생활합니다.
- 학생숙소는 6인 1실입니다. 각 방마다 개인침구 세트(2층 침대), 옷장 등의 기본적인 물품과 욕실,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냉난방기와 온돌바닥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해산절차

여름 세계시민캠프 종료 후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바로 귀가할 어린이들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고, 접수하지 않은 참가자는 서울(명동)로 버스로 이동하여 해산합니다.



## 유네스코 평화센터

경기도 이천에 1977년 문을 연 평화센터는 대지 70,000㎡(2만여평)의 청정 자연의 아늑한 숲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으려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이곳에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지구촌 교육관을 비롯하여 여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        |
|-------------------|----------------------|--------|
| ① 본관: 강의실 / 센터관리팀 | ⑦ 상생관(영어마을숙소)        | ⑬ 에코파크 |
| ② 별관: 식당 / 강의실/숙소 | ⑧ 캠프장                |        |
| ③ 숙소 A·B동         | ⑨ 잔디구장(축구,배구,농구,족구장) |        |
| ④ 아·태관            | ⑩ 테니스장               |        |
| ⑤ 지구촌교육관(영어마을)    | ⑪ 주차장                |        |
| ⑥ 교사숙소            | ⑫ 자연학습로              |        |



본관전경



본관-소회의실



본관-제1강의실



본관-제2강의실



숙소-A동



숙소-B동



숙소-내부



별관-식당

어린이  
참가자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연번	이름	성별	지역	학년	학교
1	강동윤	여	경기	5	상현초등학교
2	강예나	여	인천	6	북포초등학교
3	고하람	여	대전	6	학하초등학교
4	권아람	여	충북	6	양강초등학교
5	권혜선	여	충남	5	차동초등학교
6	김건형	남	경기	6	동백초등학교
7	김구민	남	서울	5	서울연촌초등학교
8	김나리	여	충북	5	영동초등학교
9	김다윗	남	전북	6	봉동초등학교
10	김도연	남	경기	6	도암초등학교
11	김도진	남	인천	6	인천송의초등학교
12	김도훈	남	경기	6	정평초등학교
13	김동우	남	제주	6	남광초등학교
14	김민선	여	서울	5	서울석계초등학교
15	김서연	여	경기	6	대화초등학교
16	김서현	여	경기	6	잠원초등학교
17	김소정	여	대구	6	대구시지초등학교
18	김승연	여	경기	6	석현초등학교
19	김이레	여	서울	5	서울천일초등학교
20	김지성	남	경남	6	명도초등학교
21	김지원	여	대전	6	대전갑천초등학교
22	김지원	여	서울	6	서울연은초등학교
23	김지원	여	서울	6	서울서래초등학교
24	김하린	여	강원	6	후평초등학교
25	김현진	여	인천	5	인천명선초등학교
26	김희서	여	서울	6	서울토성초등학교
27	남궁준	남	강원	6	만천초등학교



28	남윤아	여	경기	5	도곡초등학교
29	남주석	남	서울	5	서울고척초등학교
30	노경민	남	경기	5	성남신기초등학교
31	노경평	남	광주	5	광주교육대광주부설초등학교
32	노지혜	여	인천	5	인천부내초등학교
33	문수연	여	경기	5	백운초등학교
34	문준서	남	서울	6	서울이태원초등학교
35	문평안	남	경기	6	동삭초등학교
36	민서진	여	광주	6	광주중앙초등학교
37	민찬호	남	충북	5	영동초등학교
38	박주석	남	경기	6	별말초등학교
39	박주형	남	서울	6	서울중곡초등학교
40	배경태	남	서울	6	서울고척초등학교
41	백경은	여	서울	6	서울개원초등학교
42	서동영	남	서울	5	서울신영초등학교
43	서준석	남	세종	6	쌍류초등학교
44	서희진	여	서울	6	신용산초등학교
45	성정연	여	경기	6	안흥초등학교
46	송영서	여	경기	5	연동초등학교
47	송혜린	여	경남	6	황산초등학교
48	신현호	남	충북	6	각리초등학교
49	심동현	남	전남	6	순천왕지초등학교
50	안치애	여	경기	6	도암초등학교
51	양은하	여	강원	6	중앙초등학교
52	양혜안	여	제주	6	보성초등학교
53	오영운	남	경남	6	김해삼성초등학교
54	오원준	남	서울	6	광운초등학교
55	우현수	여	경기	6	신둔초등학교
56	유권우	남	부산	6	봉학초등학교
57	유지선	여	강원	6	청양초등학교
58	윤자민	여	전남	5	노화초등학교
59	윤지혜	여	전남	6	압해초등학교
60	윤지호	남	경기	6	영덕초등학교
61	이규한	남	경기	5	반석초등학교
62	이다연	여	세종	6	수왕초등학교
63	이아선	여	인천	5	인천청량초등학교

64	이영진	남	충북	6	양강초등학교
65	이예진	여	경기	5	광명남초등학교
66	이윤서	여	경기	6	오마초등학교
67	이은채	여	경기	5	안현초등학교
68	이익겸	남	경기	6	상하초등학교
69	이정민	여	서울	6	서울발산초등학교
70	이정석	남	광주	6	광주송원초등학교
71	이채원	여	경북	6	안동동부초등학교
72	이채은	여	서울	6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73	이현우	남	서울	6	서울녹번초등학교
74	임현빈	남	경기	6	설봉초등학교
75	전성빈	남	경북	6	금장초등학교
76	전혜인	여	경기	6	홍천초등학교
77	정새하	여	광주	5	광주남초등학교
78	정시우	남	인천	6	인천경원초등학교
79	정아운	여	강원	6	명덕초등학교
80	정재운	여	경기	5	운천초등학교
81	정현준	남	전남	6	장흥초등학교
82	조문경	여	대구	6	대구대곡초등학교
83	조승표	남	서울	6	서울신양초등학교
84	조원빈	남	울산	6	호연초등학교
85	조유은	여	전남	6	광양제철초등학교
86	지민경	여	울산	5	남산초등학교
87	지태인	남	세종	5	금남초등학교
88	최수호	남	세종	6	참샘초등학교
89	최예운	여	서울	6	덕의초등학교
90	최지예	여	서울	5	서울개봉초등학교
91	하윤지	여	경기	6	부천덕산초등학교
92	한다연	여	경기	5	별말초등학교
93	한보미	여	경기	5	이천송정초등학교
94	한석영	남	인천	6	인천송의초등학교
95	한운경	여	대전	6	대전갈마초등학교
96	홍석준	남	대전	6	대전금동초등학교
97	황교진	남	경기	6	동백초등학교
98	황다운	여	광주	6	운천초등학교
99	황세연	여	경남	6	삼장초등학교

(\* 1명은 자진포기 의사를 밝혀 세계시민캠프에 불참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

연번	이름	성별	학교	전공
1	김세리	여	연세대	교육학과/영어영문학과
2	김수민	여	연세대	불어불문학과/아동가족학과
3	김수진	여	숙명여대	중어중문학/글로벌협력
4	김혜림	여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5	김혜진	여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박노현	남	중앙대	교육학과/통계학과
7	박수지	여	카톨릭대	영어영문학과/국제통상학과
8	손종무	남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과/ 라틴아메리카지역학과
9	신이수	여	이화여대	사학과/정치외교학과/ 미술사학과
10	윤기원	남	홍익대	영어교육학과/컴퓨터공학과
11	윤상윤	남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12	이승민	남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경영학과
13	이진혁	남	중앙대	심리학과
14	조혜림	여	성균관대	교육학과/심리학과
15	한슬기	여	청주교육대	초등교육학과
16	황동진	남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 조 편성

조	멘토	A	B
1조	황동진	• 김도훈 • 이채원 • 노경평 • 김지원(서울서래초) • 권아람	• 전성빈 • 송혜린 • 이은채 • 이현우 • 윤자민
2조	김세리	• 양은하 • 김동우 • 문수연 • 오원준 • 조유은	• 유지선 • 정현준 • 정재윤 • 이익겸 • 김이레
3조	신이수	• 김하린 • 신현호 • 송영서 • 배경태 • 노지혜	• 유권우 • 하윤지 • 이아선 • 이채은 • 황교진
4조	박노현	• 성정연 • 심동현 • 지태인 • 김희서 • 강예나	• 안치애 • 김도진 • 서동영 • 윤지혜 • 김도연
5조	한슬기	• 박주형 • 이윤서 • 김현진 • 윤지호 • 한윤경	• 문준서 • 전해인 • 민찬호 • 정새하 • 양혜안
6조	김수진	• 황세연 • 최수호 • 남윤아 • 조승표 • 김나리	• 한석영 • 김서현 • 지민경 • 박주석 • 서희진
7조	이승민	• 정시우 • 김승연 • 권혜선 • 김건형 • 최지예	• 이영진 • 황다운 • 강동운 • 김지성 • 이정민
8조	조혜림	• 최예운 • 홍석준 • 한다연 • 임현빈 • 정아윤	• 김소정 • 서준석 • 김구민 • 이예진 • 김지원(대전갑천초)
9조	김수민	• 김다윗 • 김서연 • 김민선 • 남궁준 • 조문경	• 이정석 • 이규한 • 문평안 • 김지원(서울연은초)
10조	손종무	• 백경은 • 오영운 • 노경민 • 한보미 • 고하람	• 조원빈 • 우현수 • 남주석 • 민서진 • 이다연

(\* 1조~10조는 담당 멘토별 분류이며, A~B조는 유네스코총회 주제별 분류입니다.)

발대식



**일시** 2015년 8월6일(목) 오전10시30분~12시

**장소**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참가자** 전체 약 200명 (어린이 참가자, 대학생 멘토, 관계자, 학부모 등)

## 발대식 일정

시간	내용
9:30-10:30	등록
10:30-10:4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개동영상
10:40-10:45	세계시민캠프 일정 소개
10:45-11:00	내빈, 유네스코 키즈, 대학생 멘토, 관계자 소개
11:00-11:15	개회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키즈 프로그램"
11:15-11:20	축사 (기아자동차 마케팅전략실장 박재항 이사)
11:20-11:25	유네스코 키즈 3기 선서낭독
11:25-11:30	단체사진 촬영
11:30-11:50	보호자와 멘토의 만남

(\*서울 명동에 위치한 유네스코회관에서 발대식 개최 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세계시민캠프를 개최)



무더운 여름, 2015년 8월 6일 명동 유네스코회관의 유네스코홀. 유네스코 키즈 3기 어린이들과 대학생 멘토,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유네스코홀을 가득 매운 자리에서 '제3기 유네스코 키즈 세계시민캠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향한 두근거림과 열정으로 가득 찬 유네스코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유네스코 키즈'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어린이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캠프에 임하기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 키즈호의 출정을 응원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있어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한 뒤 “매년 100여명씩 10년간 1천명의 유네스코 키즈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총장은 또 “반기문 총장과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하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는 물론 다른 외국어를 반드시 3-5개씩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아자동차 마케팅전략실장 박재항 이사님도 따뜻한 축하인사로 유네스코 키즈의 출발을 격려해주셨습니다.

박재항 기아자동차 마케팅전략실장 이사



왼쪽부터 김수진 멘토, 강동윤(상현초5), 김건형(동백초6), 손종무 멘토

참가학생들을 대표하여 강동윤(상현초5), 김건형(동백초6) 학생이 선서를 낭독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즐겁고 안전한 캠프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학생 2명이 낭독하는 세계시민캠프에 임하는 유네스코 키즈 3기의 선서가 유네스코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젓하게 발대식을 마친 키즈들은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후, 캠프가 진행 될 경기도 이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키즈들의 잊지 못할 4박5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전체일정

일정		주요내용
1일차	8월6일(목)	발대식 명동→이천 이동 학습활동1 : UN과 MDGs 특별활동1 : Ice Breaking
2일차	8월7일(금)	특별활동2 : 모의총회나라선정 학습활동2 : 유넵과 환경 학습활동3 :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사진 미션 체험활동1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만들기
3일차	8월8일(토)	체험활동2 : 조선왕릉답사 학습활동4 : 평화와 인권 유네스코 키즈 로고 그리기 에세이 쓰기 모의총회준비
4일차	8월9일(일)	특별활동3 : 야외체육활동 모의유네스코총회준비 모의유네스코총회 캠프파이어
5일차	8월10일(월)	체험활동3 : 기아자동차공장견학 이천→명동 이동 수료식 및 해단식



## 세부일정



### 1일차 8월6일 목요일

시간	활동	장소	비고
10:00-11:00	유네스코 회관 도착 & 등록	유네스코 회관	참가자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석
11:00-12:00	발대식		
12:00-13:00	명동→이천 이동		단체버스로 함께 이동
13:00-14:00	점심 / 숙소 체크인		
14:00-16:00	시작의 시간		일정 안내 및 안전 교육
16:00-18:00	 학습활동 UN과 MDGs	강당	세계식량계획(WFO)의 임형준 한국사무소장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1:00	아이스브레이킹	강당	즐거운 놀이를 통해 서로 친해지는 시간!



## 학습활동1

**주 제** UN과 국제기구의 활동

**강연자**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World Food Programme) 한국사무소장

**내 용** UN과 MDG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기아', '난민', '식량부족' 등의 주제 강연

유엔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임형준 소장님께서서는 국제기구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국가 중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모여 국제법에 의한 합의에 따라 만든 국제협력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중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느낀 국가들이 유엔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시며, 제8대 사무총장과 재임을 거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어,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국제기구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식량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어 굶어가는 아이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여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6년 10월 20일에 WFP에 가입하여 식량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설명해주셨습니다.

## Ice Breaking! 서로 친해지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유네스코 키즈들. 어제만 해도 몰랐던 새로운 얼굴들이지만, 조별로 다양한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색했던 분위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 사이는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 2일차 8월7일 금요일

시간	활동	장소	비고
07:0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식당	어제 기아와 빈곤에 관한 강연을 듣고 우리 친구들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09:00-10:00	모의총회나라선정		
10:00-12:00	 학습활동2 유넵과 환경	강당	UNEP한국위원회 김수현 팀장
12:00-14:00	점심식사	식당	
14:00-16:00	 학습활동3 문화다양성	강당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
16:00-18:00	유네스코사진미션		유네스코 관련 키워드로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찍어봐요!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1:00	 체험활동1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만들기		경희대학교 환경동아리 ENVIS
21:00	개인정비 및 취침	숙소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 모의 유네스코총회 나라 선정

여기는 유네스코평화센터 강당.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위한 국가 선정 시간입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국가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표명해야하는 만큼, 나라 선정이 총회에 앞서 앞으로의 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2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열리는데 제1위원회의 주제는 '각국은 원자력 핵 발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였으며, 제2위원회의 주제는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였습니다.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10개 나라가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캠프 참가자들은 총 10개 조로 편성되었고, 각조는 'A'조, 'B'조로 총 20개 팀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모의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팀 단위로 국가를 배정 받아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조의 대표들이 단상에 오르고 상에서 공을 뽑습니다. 과연 우리 팀은 어떤 국가를 대표하게 될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조가 대표하게 될 국가의 국기가 펼쳐질 때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원하는 국가에 배정되어 열광하는 팀이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조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키즈들은 자신이 속한 조가 대표하게 될 국가의 입장에 서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발의문을 작성하고 연습하며 모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해당국의 입장을 훌륭하게 대변해주었습니다.



## 학습활동2

주 제 UNEP과 환경

강연자 김수현

UNEP한국위원회 팀장

내 용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인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한국위원회에서 현재 환경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기후 변화  
에 대한 재미있는 소개 및 영상



## 학습활동3

주 제 문화다양성

강연자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내 용 세계시민 및 글로벌 리더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  
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



## 유네스코 사진미션



**내용** 조별로 세 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각 주제에 대한 스토리를 사진으로 구성하여 발표하는 활동

**주제** 모두를 위한 교육, 빈곤 없는 세상,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사진미션은 조 단위로 진행되는 활동으로, 한 시간 이내로

**1. 주제 선정 2. 스토리 구상  
3. 사진 촬영 및 편집 4. 발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번 사진미션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교육, 빈곤 없는 세상,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총 세 가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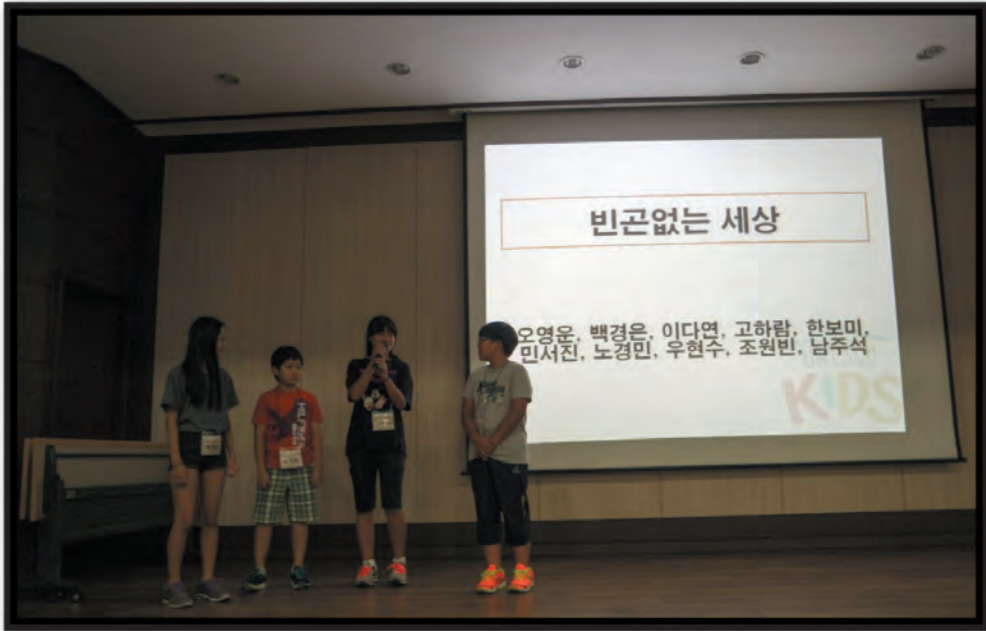


키즈들은 사진미션이라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이념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에 걸맞는 참신한 스토리와 각 장면을 표현해내는 키즈들의 연기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원들간의 협동심까지. 이 모두가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진미션입니다.

혼자만 잘해서는 미션을 수행해 낼 수 없습니다. 키즈들은 구상, 촬영, 편집, 발표의 각 단계를 거치며 여러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에도 배우게 되었답니다.





제한된 공간과 소품이지만 키즈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 머릿속에 있는 장면들을 구체화 해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사진 미션을 발표하는 시간. 키즈들의 생동감 넘치는 표정 연기에 깔깔 거리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웁니다.

발표에서는 각 주제를 두고 국제기구의 역할과 더불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키즈들만의 시각으로 흥미롭게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키즈들이 만들어낸 행복한 결말 속의 모두를 위한 교육, 빈곤 없는 세상,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 세상은 바로 우리 키즈들의 미래겠지요?

## 🔍 체험활동1

주 제 친환경 자동차 만들기

강연자 경희대 환경공학과 동아리  
ENVIS

내 용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기존의 연료뿐 아  
니라 어떤 에너지를 응용하여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지 모  
형 친환경 자동차들을 만들어  
보면서 체험하는 시간.





### 3일차 8월8일토요일

시간	활동	장소	비고
07:00-9:00	기상 / 아침식사	식당	
09:00-10:00	이천→여주 이동		
10:00-11:00	 <b>체험활동2</b> 조선왕릉 답사	경기도 여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종대왕릉을 함께 방문해볼까요?
11:00-12:00	여주→이천 이동		
12:00-14:00	점심 및 휴식	식당	
14:00-16:00	 <b>학습활동4</b> 평화와 인권	강당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요?
16:00-18:00	유네스코 키즈 로고 그리기	강당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에세이 쓰기	강당	
20:00-21:00	모의총회 준비	강당	발표문 작성
21:00	마무리 및 취침		

## 🔍 체험활동2

주 제 세종대왕 영릉 방문

장 소 경기도 여주시

내 용 조선 제4대 왕 세종  
(1397~1450, 재위1418~1450)과  
소헌왕후 심씨(1395~1446)를  
합장한 무덤입니다.



### 세종대왕 영릉 방문

다음 일정으로 학생들이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의 무덤 영릉이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입니다. 또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도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대왕과 유네스코의 인연은 참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15세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릉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합장된 왕릉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왕릉 앞에서 제례장소에 이르는 길 양측에는 세종 후세의 임금들이 다니던 임금의 길 즉 <어도>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고 걷는 길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길이라는 관계자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되새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 학습활동4

### 주 제 평화와 인권

**강연자** • 전세연 :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사무국장,  
• 김승환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내 용**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요?

강사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는 어떤 느낌일까요? 어린이들은 손을 번쩍 들어 참으로 다양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폭력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즉, 갈등을 포용하고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 받는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러한 평화에 한발 다가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정답 대신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친구 사이에, 우리 사이의 보이지 않는 실을 찾아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며, '나'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봅니다.





## 4일차 8월9일 일요일

시간	활동	장소	비고
07:00	기상		
08:00-09:00	아침식사	식당	
09:00-10:00	야외체육활동		유네스코 평화센터의 푸른 잔디에서 친구들과 야외체육활동!
10:00-12:00	모의유네스코 총회준비	강당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발표문을 만들어 봅시다. 과연 각 주제에 대해 내가 대변하는 나라는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12:00-13:00	점심식사	식당	
13:00-18:00	모의총회	강당	각국은 원자력 핵 발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18:00-19:00	저녁식사	식당	
19:00-20:00	캠프파이어		우리 어린이들이 숨겨두었던 끼를 발산합니다!
20:00-21:00	약속의 시간 "나의 다짐"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봅니다.
21:00	마무리 및 취침		



## 모의 유네스코 총회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국제기구 총회 간접 체험



### 주제

1. 각국은 원자력 핵 발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2.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순서	내용
개회사	민동석 사무총장님의 개회사
기조연설	각 국의 입장 발표
휴식	휴식시간
본회의	다른 국가의 의견에 대한 동의 및 반박
휴식 및 발언정리	휴식시간 및 마무리 발언 준비
폐회	마무리 발언(클로징)



“대학생 때 모의 유엔총회에 참가한 이후 외교관의 꿈을 키웠고, 그 결과 오늘날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이 이번 세계시민캠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프로그램, 바로 모의 유네스코 총회입니다. 유네스코 총회는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 인류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논의하는 현장입니다. 각국의 대표가 되어 세계가 직면한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쉽게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지요.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두 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키즈들은 모의 유네스코 총회 활동을 통하여 국제회의 과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시민캠프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모의 유네스코 총회’입니다. 키즈들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각 나라의 대표가 돼 실제 국제회의 방식으로 기조발언,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하는 값진 경험을 가졌습니다. ‘모의’지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총회였습니다. 완벽한 경험을 위해 23조에 이르는 ‘의사 진행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편안한 티셔츠 복장이던 멘토들도 이 시간만큼은 정장 차림으로 국제회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평화센터 내 강당에는 각 나라의 국기가 세워지고 실제 국제회의장처럼 꾸며졌습니다.

올해 의제는 '각국은 원자력 핵 발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와 '각국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 두 가지였습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나라 선정의 결과대로, 키즈들은 해당 국가의 대표가 돼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총회를 준비합니다.



3일에 걸쳐 꼼꼼히 자료를 조사하고 역할을 나누고 기조 발언문을 적는 것 모두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중국 대표의 의견에 반박합니다. 중국 대표께서는 핵발전소를 사막 지역에 건설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있어서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핵발전소의 경우 냉각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사막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독일 대표께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은 핵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발생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문 외교관 못지않은 발언들이 키즈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토의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몇몇 의견은 생략됐지만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각 나라의 명패를 세우는 등의 관례는 실제 회의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총회에도 키즈들의 표정에서는 비장미까지 느껴집니다.

긴장감에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키즈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또박 또박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해냈다는 자긍심에 눈빛이 반짝입니다.



## 5일차 8월10일 월요일

시간	활동	장소	비고
07:00	기상		
08:00-09:00	이천→화성이동		
09:00-11:00	 <b>체험활동2</b> 기아자동차 공장견학	경기도 화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자동차 공장 견학하기!
11:00-12:00	화성→서울이동		
15:00-16:00	수료식 및 해단식	유네스코 회관	진정한 유네스코키즈로 거듭나는 시간! 우리도 이제는 '유네스코 패밀리' 입니다!
16:00-	귀가		

### 🔍 체험활동3

**주 제** 신재생 에너지 기아자동차  
공장견학

**장 소**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내 용** 신재생 에너지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공장견학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

오전 프로그램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기아자동차 공장 견학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은 어른들도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시설을 보게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기아자동차의 깊은 배려라 느껴졌습니다.

평화센터를 출발한 버스가 공장으로 들어서자 시설의 웅장함에 학생들 모두 환호성 연발이었습니다. 홍보관에 마련된 스크린 터치 화면도 만져보고 다양한 자동차 샘플도 보며 한국 자동차 역사와 현황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조립 라인을 따라 용접과 도장, 내장재 설치 등의 자동차 생산 현장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생산라인을 오가는 사이사이 입을 딱 벌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견학이 끝난 뒤 기아자동차는 학생들에게 멋진 모형 자동차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받은 것은 비록 모형 자동차 이었지만 학생들은 벌써 이 차에다가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한가득 싣고 미래를 향해 신나게 달리는 표정들이었습니다.





## 수료식



4박5일간의 캠프가 끝나고 100명의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 다시 입장합니다. 같은 장소에 다시 모였지만, 우리 키즈들의 표정이 발대식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인지 어린 학생들의 얼굴에서 뿌듯함과 동시에 위엄마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관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수료증을 수여 받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박5일이라는 시간 동안 키즈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각종 학습활동과 체험활동을 수료했을 뿐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의 꿈을 함께 키워



갈 새로운 친구 99명과 든든한 멘토 형, 누나 16명이 생긴 것 또한 키즈들에게는 이번 세계시민캠프의 크나큰 수확일 것입니다. 이들은 ‘유네스코 키즈’ 그리고 ‘유네스코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서로가 앞으로의 삶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여름보다 더 뜨거웠던 4박5일간의 캠프가 끝나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키즈입니다!”







### 3. 자기주도 학습

---



## 자기주도학습 개요

### 1. 목적

유네스코키즈 3기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은 세계시민캠프 이후 선발된 25명에게 유네스코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겨울에 참가하게 될 해외현장학습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또한 어린이 참가자들에게 교실 밖 수업의 일환으로 보다 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2. 학습대상

과제는 초등학교 5-6학년이라면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제는 어린이 참가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여 쓰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3. 실행방법

9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는 어린이(및 보호자)의 이메일로 전달되며, 완료된 과제는 제출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어린이 참가자는 해당 과제를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학기 중임을 감안하여 학교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기 간** 2015년 9월 ~ 12월

**장 소** 각 참가자들의 거주지

**참가자** 어린이 참가자 25명 (대학생 멘토 5명은 활동 지원)

#### 주요내용

-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관련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 단계별 과제 제시 및 온라인 수합
- 대학생 멘토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과제 점검 및 의견(피드백) 전달



연월	테마	과제	제출기한
9월	평화/인권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요약해보고, 내가 생각 하는 평화와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써봅시다.	9월 25일(금) 오후 6시까지
10월	환경과 생명	환경과 생명 존중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상문을 써봅시다. 1. 선택한 다큐멘터리의 제목, 선정 이유 그리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관련 포스터나 사진도 붙여주세요. 2.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상문을 적어보세요. 3. 다큐멘터리를 보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해봅시다. (환경과 내 주변의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의 실천 한 가지)	10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11월	유네스코	유네스코(UNESCO)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1. 유네스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2. 유네스코와 관련한 하위 주제를 한 개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 조사해보아요! (예 : 유네스코 총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유네스코의 회원국,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본부 등) 3. 이번 자기주도학습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11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12월	파리 테러와 유네스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읽고 요약한 후 본인의 생각을 나누어봅시다. 1. 파리 테러 사건과 관련된 뉴스 기사 요약 2. 테러가 일어난 원인과 이같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2월 11일(금) 오후 6시까지





## 4. 해외현장학습

---



## 해외현장학습 목적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줌으로써, 국제 평화의 발전을 이끌어갈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 8월, 4박 5일간의 여름 세계시민캠프를 통해 최종 선발된 어린이들은 4개월 동안 평화, 환경보호, 유네스코 등 심도 높은 주제에 관하여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즈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2016년 1월 태국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총 5박6일 동안 유네스코키즈 어린이들은 국제기구(UNESCO, UNESCAP 등) 방문 및 세계문화유산(아유타야 등) 탐방, 태국 유네스코학교 어린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시야를 넓히고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해외현장학습 개요

항목	세부내용		
기간	2016년 1월 17일(일) - 1월 22일(금) / 5박6일		
참가자 (총 37명)	유네스코 키즈	총 25명 (남 11명, 여 14명 / 6학년 17명, 5학년 8명)	
	대학생 멘토	총 5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	총 4명
		신미아 차세대팀장	
		한명희 차세대팀원	
김현철 홍보소통팀원			
하나투어	윤정토 대리 장평석 간호사	총 2명	

### 주요내용

- 국제기구 실무현장 방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및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 태국 유네스코학교 방문 - 현지 유네스코학교 방문, 현지 학생과 문화교류
- 세계유산 답사 - 아유타야 등 현지 세계유산 답사
- 주제 토론, 발표

어린이  
참가자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연번	이름	성별	지역	학년	학교
1	강동운	여	경기	5	상현
2	김구민	남	서울	5	서울연촌
3	김도진	남	인천	6	인천송의
4	김동우	남	제주	6	남광
5	김승연	여	경기	6	석천
6	김지원	여	서울	6	서울연은
7	노경평	남	광주	5	광주교육대광주부설
8	문수연	여	경기	5	백운
9	문준서	남	서울	6	서울이태원
10	박주석	남	경기	6	별말
11	백경은	여	서울	6	서울개원
12	서희진	여	서울	6	신용산
13	송영서	여	경기	5	언동
14	안치애	여	경기	6	도암
15	윤자민	여	전남	5	노화
16	이아선	여	인천	5	인천청량
17	이익겸	남	경기	6	상하
18	전성빈	남	경북	6	금장
19	전혜인	여	경기	6	홍천
20	정시우	남	인천	6	인천경원
21	정아운	여	강원	6	명덕
22	정재윤	여	경기	5	운천
23	조승표	남	서울	6	서울신양
24	최수호	남	세종	6	참샘
25	황세연	여	경남	6	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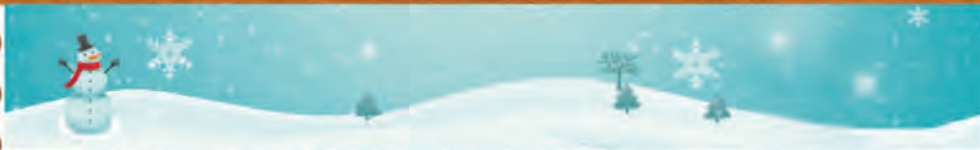
대학생  
멘토

연번	이름	성별	학교	전공
1	김수민	여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아동가족학과
2	김수진	여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글로벌협력학과
3	김혜진	여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	윤상운	남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5	이승민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경영학과





## 전체 일정



일정		주요내용
1일차	1월17일(일)	✓ 인천 출국, 태국 도착, 숙소 체크인 후 취침
2일차	1월18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태국한국대사관 방문</li> <li>• 건물 투어 및 소개</li> <li>• 노광일 대사님 만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원 방문</li> <li>• 건물 투어 및 소개</li> <li>• 장서익 참서관님 만남</li> </ul>
3일차	1월19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방문</li> <li>• 본부 건물 투어</li> <li>• 김광조 본부장님 만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우타야 견학</li> </ul>
4일차	1월20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 Conference Centre 방문</li> <li>•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li> <li>• Dr. Shamshad Akhtar UNESCAP 사무총장 만남</li> <li>• 유엔 환경계획(UNE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박물관 방문</li> </ul>
5일차	1월21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유네스코학교(ASP) 방문 : Sainamtip 초등학교</li> <li>• 현지 어린이와의 만남, 수업 참관, 한국 소개 및 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궁 견학</li> <li>✓ 태국 출국</li> </ul>
6일차	1월22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도착</li> <li>✓ 해단식</li> </ul>

\* 매일 저녁 대화 및 정리의 시간

: 민동석 사무총장님과의 대화, 주제토론&발표, 워크북 작성





## 발대식 & 사전 워크숍

### 1월16일(토) 발대식 & 사전 워크숍

세계시민캠프가 막을 내린 후 부터 키즈들이 손꼽아 기다려 온 바로 그 시간, 유네스코 키즈 3기 해외현장학습 발대식이 명동 유네스코회관 유네스코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발대식은 키즈들이 태국으로 5박6일간의 해외현장학습을 떠나기 전 부모님과 캠프 관계자들 앞에서 출발을 알리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입니다. 세계시민캠프와 자기주도학습 기간 동안 함께 해왔던 대학생 멘토 5명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민동석 사무총장

성석현 부장

먼저 민동석 사무총장님의 격려사와 기아자동차 성석현 부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키즈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김수진 멘토, 황세연, 최수호, 이승민 멘토

다음으로 유네스코 키즈 3기의 다짐을 담은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다짐,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세계 유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보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모두 앞에서 큰 소리로 선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키즈 3기 해외현장학습 발대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전교육 또한 이어졌습니다.

태국 역사와 문화 강의



태국관광청 - 한송이

먼저, 태국관광청의 한송이 담당관님께서 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한송이 담당관님께서 태국 역사와 문화, 간단한 태국어 표현과 교통수단 등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키즈들은 곧 방문하게 될 태국에 친숙함을 느끼고 미리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현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교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간호사 - 장평석

장평석 간호사님의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키즈들은 해외현장학습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스스로 안전 매뉴얼을 꼼꼼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유의사항



하나투어 - 윤정토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윤정토 대리님의 해외여행 유의사항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키즈들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발대식을 마친 후 각 조별 담당 멘토들과 부모님들이 잠시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키즈들은 1박2일간의 사전워크숍을 위하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세계시민캠프를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반가운 재회였습니다. 키즈들은 태국 유네스코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선사할 공연 준비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함께 생활하며 지켜야 할 규칙들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해외현장학습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키즈들은 떨리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며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5박6일간의 해외현장학습 후 키즈들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 세부 일정



### 1일차 1월17일 일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17일(일)	18:20-22:10	출국 (서울→방콕)
	23:00-	숙소도착 후 휴식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및  
문화원 방문

2일차 1월18일 월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18일(월)	11:00-11:30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노광일 주태국대한민국대사님 인사말씀
	11:30-14:00	식당 이동 및 점심식사
	14:00-15:00	주태국대한민국문화원 방문 : 장서익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참서관님 소개말씀
	15:00-19:00	숙소이동, 휴식 및 저녁식사
	19:00-21:00	토론 및 발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21:00-22:00	대화 및 정리의 시간 (사무총장님과의 대화, 워크북 쓰기)

## 태국 속의 한국, 세계 속의 한국을 보다!



유네스코 키즈 일행이 겨울캠프 첫날 방문한 곳은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대변인을 지내 국민들에게도 얼굴이 친숙한 노광일 대사님과 대사관 직원들이 반갑게 키즈 일행을 맞아주셨습니다. 노 대사님은 공관 대회의실에서 태국과 우리나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풀어가셨습니다.



미처 몰랐던 역사 이야기에 키즈 어린이들의 얼굴에 호기심이 묻어납니다. 뒤이어 노 대사님은 주태국 대사로서 하는 일과 대사관 업무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윽고 키즈 특유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번쩍 번쩍 손이 올라갑니다. “외교관이 되었을 때 불편한 점은 없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등 키즈의 질문 세례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일어서야 하는 노 대사님이 한 어린이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미래세대,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광일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게 중요해요. 일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실수가 자신을 발전시키거든요. 반성도 하고 자신을 독려하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말고 꿈에 열심히 도전하기를 바라요.”





이날 오후, 키즈 일행은 한류 열풍 속에 2013년 문을 연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태국의 중고등학생들 중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2만 5000명에 이르고, 53개 대학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과가 11개나 개설돼 있다고 하니, 태국이야말로 동남아 한류 열풍의 ‘진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키즈 어린이들은 한국문화원에서 장서익 참사관(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님으로부터 외교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태국 문화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태국과의 첫 교류는 고려 말기에 시작됐어요. 1391년에 태국 사신이 고려에 도착해 편지와 토산품을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3번이나 통역을 거쳐 의사소통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두 손을 마치 합장하듯 맞대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건 금기시되고 있어요. 머리에 영혼이 있어 만지면 빠져나간다고 여기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키즈 어린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납니다. 키즈 일행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장 참사관님은 주말의 휴식도 포기하고 며칠이고 강의 자료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더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 꿈나무들에게 전해주고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니다. 많은 이들의 따뜻한 환영과 배려 속에서 겨울캠프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 비타민 같았던 매일 저녁 '토론과 발표' 시간

이날 저녁 키즈 어린이들은 '세계시민'을 주제로 조별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전지에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이의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고 봉사정신을 가지며 세계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지구촌에서 인권과 문화를 존중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세계를 향한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 다양한 의견이 발표된 후 키즈 일행을 인솔하는 민동석 한위 사무총장님의 총평과 격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 총장님은 어린이들에게 “세계시민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세계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 하셨습니다.

키즈 어린이들의 주제별 토론과 발표, 그리고 민 총장님의 평가는 이번 겨울캠프에서 매일 저녁 진행되었습니다. 현장학습에서 깨달은 점과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공식일정이 시작된 첫날이니만큼, 민 총장님께서서는 키즈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신의 그릇을 점점 키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세계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꿈을 아름답게 피워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민동석 사무총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본부 및  
문화유산지 방문

3일차 1월19일 화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19일(화)	10:00-11:30	UNESCO 아시아태평양 본부 방문 : 김광조 사무소장님과의 만남
	12:00-13:00	점심식사
	13:00-18:00	아유타야 방문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토론 및 레크리에이션 "유네스코와 세계유산 보호"
	21:00-22:00	대화 및 정리의 시간 (사무총장님과의 대화, 워크북 쓰기)



유네스코키즈 어린이들의 오전 첫 일정은 바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방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유네스코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제외하면 55개 지역사무소 가운데 가장 큰 사무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CEO’ 격인 김광조 사무소장(본부장)님은 교육부 차관보 출신으로 유네스코 고위직에 도전해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으신 분입니다. 키즈 일행을 따듯한 미소로 환영한 김 소장님께서서는 ‘유네스코, 한국과 유네스코, 그리고 유네스코와 나’를 테마로 인상적인 강연을 펼치셨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이번에도 키즈 어린이들의 손이 비온 후 대나무 숲 자라듯 올라갑니다. 간간이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에 김 소장님께서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방콕사무소가 아태 지역 본부인데 왜 다른 대륙 출신 직원들이 많나요?”(참고로 방콕사무소에는 28개국에서 온 145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 직원은 자기 국적을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공영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같은 논리로, 유엔 직원은 국적에 관계 없이 어디서든 일하는 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계시지만, 아직도 유엔 조직에는 한국사람의 수가 적어요. 여러분 세대에는 더 많이 유엔 기구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을 지내셨는데, 이 자리로 오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벌써 8년 전이네요. 제가 교육 분야 공무원으로서 28년간 일을 했어요. 이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에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게 된 거지요. 시험 아닌 시험도 보고, 몇 차례 면접도 거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국제기구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 제가 한



국 정부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갔는데, 당시 지도교수님이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하신다며 참여하라고 권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 이런 방식으로 빈곤한 나라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구나 하고 마음에 새긴 게 있었지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지만 소박한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현실이 된 것이죠.”

사실, 이날 김 소장님과 키즈 어린이들의 만남은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김 소장님의 출장과 키즈 일행의 방문 일정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김 소장님께서 어렵사리 출장을 연기하고 키즈 어린이들 앞에 섰던 것은 그만큼 이들 꿈나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려의 마음은 김 소장님께서 남긴 이야기 속에도 물씬 묻어 있습니다.



#### 김광조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장

“저는 여러분께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게 처음에는 다 생각으로, 꿈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 여러분이 준비를 계속 한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라는 것,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말을 3가지 더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무대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날 오후, 키즈 어린이들은 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유타야 역사도시’를 탐방했습니다. 아유타야는 ‘불멸’이라는 뜻을 지닌 도시로 과거 400여 년 동안 이어진 아유타야 왕국의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와의 전쟁으로 상당수 유산이 파괴된 후 유네스코의 발굴 작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역사도시입니다. 이곳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어린이들은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UN ESCAP 및  
UNEP 방문

4일차 1월20일 수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20일(수) 	10:00-11:30	UN ESCAP 방문 : Dr. Shamshad Akhtar 사무총장 환영사
	12:15-14:00	UN 투어 : 유엔사무총장기후변화수석자문관 정래권 박사님과과의 만남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14:00-15:00	UNEP 방문
	15:00-19:00	숙소 이동 및 휴식, 저녁식사
	19:00-21:00	토론 및 레크리에이션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21:00-22:00	대화 및 정리의 시간 (사무총장님과의 대화, 워크북 쓰기)

'아시아 속의 유엔' 서 가슴 뛰는 변화를 맞보다



이날 아침 유네스코 키즈 어린이들은 '아시아 속의 유엔'이라고 할 수 있는 방콕 시내의 '유엔 콘퍼런스센터'(UNCC:United Nations Conference Centre)를 방문했습니다. '유엔회의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건물에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UN ESCAP, 이하 ESCAP) 본부를 비롯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테러사태로 인해 한층 강화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키즈 일행은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는 '제3 회의실'(Conference Room 3)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만날 인물은 ESCAP을 이끄는 샴샤드 아크타르(Shamshad Akhtar) 사무총장님입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내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에서 두루 일했던 국제 금융개발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ESCAP은 1947년 유엔이 아태 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기구로, 53개 회원국 및 9개 준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3/5가량인 41억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엔에서도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회의실 안으로 순후해 보이는 인상의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아크타르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아크타르 총장은 한국어 '안녕하세요'를 포함해 영어 등 4개국의 아침 인사말로 환영사를 시작했습니다.

샴샤드 아크타르 UNESCAP 사무총장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모든 국가의 지역본부인 ESCAP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보좌진이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었을 때 많이 설레었습니다. 유엔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ESCAP이 젊은 세



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결정에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재능을 지녔고, 꿈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유엔에 정말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새천년개발계획이라 불렀던 지난 15년간의 사업을 마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학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제대로 된 일자리나 깨끗한 물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가 처음으로 뜻을 같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다른 지역 어느 곳보다도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겐 아직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해에 거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다음 15년간

지 진행할 새로운 계획,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동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17개 개발목표는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에게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계획이 끝나는 2030년까지 - 아마도 여러분 중 대부분은 그때쯤 자녀를 갖게 되겠지만 -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 세상은 매우 다른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이상 빈곤으로 고통받지 않고, 매일 밤 굶주려 잠드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릴 것이고, 좋은 학교와 깨끗한 선거, 그리고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이 제공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건강한 도시, 자연과 자연의 선물을 존중하는 관계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도전, 여러분의 잠재력이 여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ESCAP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기회를 배우고 이끄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국가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30년에 여러분과 함께 뒤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2016년이 변화가 시작된 해라고 말이죠.

ESCAP과 방콕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크타르 총장의 환영사는 키즈 어린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지만, 감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다. 그가 키즈 일행 모두에게 돌린 ‘깜짝 선물’인 ‘유엔 모자’ 덕분입니다. 아크타르 사무총장과 민동석 한위 사무총장, 그리고 키즈 어린이들과 대학생 멘토 등 일행 모두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선 밝은 에너지가 뿜어나오는 듯했습니다.





정래권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

잠시 동안 유엔 콘퍼런스센터 투어를 마친 키즈 어린이들은 한국이 배출한 또 한 명의 국제 유명 인사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바로, 외교관 출신으로 ESCAP 환경국장을 거쳐 유엔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을 맡고 있는 정래권 박사님입니다. 정 박사님은 키즈 어린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를 화두로 대화를 풀어가셨습니다.

“국제기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세상’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나요? 지난해 지구촌 정상들이 합의하고 유엔에서 최근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내용들(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이 바로 유엔이 제시하는 ‘더 나은 세상’의 청사진입니다(이 목표에는 빈곤 종식, 포용적이고 평형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등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거의 모든 가치가 반영돼 있다).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일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이날 정 박사가 키즈 어린이들에게 전하려 한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인지 각자 생각해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의 주인공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유네스코학교(ASP) 및  
문화유산지 방문

5일차 1월21일 목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21일(목)	09:30-13:00	태국 유네스코학교(ASP) 방문 : Sainamtip School -현지 어린이 만남, 수업 참관, 한국소개 및 공연 등 -점심식사
	13:00-17:00	왕궁 견학
	17:00-20:00	이동 및 저녁식사
	20:00-23:00	공항으로 이동 및 출국수속
	23:40-	귀국 (방콕→인천)

국경을 넘은 우정, 세계시민으로 가는 길



공식 일정 마지막 날 아침, 유네스코키즈 어린이들이 향한 곳은 태국의 유네스코학교인 사이남팁 초등학교였습니다. 사이남팁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문 앞에 나와 환영 인사를 전하고, 운동장에서 애국가와 태국 국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이남팁 학교는 환경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의 인사말 속에서도 환경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국에는 치료보다 예방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식물을 키우는 데 비료로 사용합니다. 종이를 아껴 쓰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 양국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사이남팁학교 교장선생님이 한국말 “감사합니다”로 환영 인사를 마치자, 민동석 한위 사무총장이 태국어로 답례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성대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이 만남이 유네스코의 정신과 가치를 바탕으로 우정과 이해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과 태국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후 키즈 어린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환경학교’답게 재활용품을 이용해 ‘팽이’와 ‘슬리퍼’를 만드는 실습을 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전통춤과 무에타이 에어로빅 등 사이남팁 학교 학생들의 환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복을 차려 입은 태국 어린이들이 양국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류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곡 ‘오나라’를 배경음악으로 부채춤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키즈 어린이들의 답례 공연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가벼운 율동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한 어린이들이 두번째 곡인 태국 동요 ‘창창창창’(‘창’은 꼬끼리라는 뜻)을 부르자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곡은 지구촌 유행가 가 된 ‘강남 스타일’입니다. 키즈 어린이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군무’를 펼치자 장내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서먹해 하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동심은 양국 어린이들을어느새 친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 유네스코키즈가 현장에서 체득한 세계시민의 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 입국 및 해단식

6일차 1월22일 금요일

시간	활동	내용
1월22일(금)	6:50-9:30	인천공항 도착 및 이동
	10:00-11:00	해단식
	11:00	귀가

유네스코 키즈들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라 되돌아 보며, 꿈을 그려보고, 다짐을 되새겨본 해외현장학습이 끝났다는 아쉬움과, 친구들과 멘토 선생님들과 헤어져야한다는 아쉬움이 밀려오나봅니다.

하지만 꿈과 마음과 다짐이 어느새 쑥쑥 커져있는 우리 키즈들의 모습에 학부모와 보호자 분들의 얼굴에는 대견함이 담긴 미소가 가득합니다. 키즈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나요?

유네스코 키즈 3기 활동 후  
나의 변화 그리고 나의 꿈





김도진

“속보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최소 1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유네스코 키즈 11월 자기 주도 학습을 끝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던 내게 들린 다급한 앵커의 목소리는 내 몸을 TV 앞으로 이끌었다.

믿을 수 없었던 이 사건은 사실이었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추모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추가 범죄의 염려 속에 결국 우리의 해외 현장 학습은 태국으로 급히 바뀌었다.

드디어 2016년 1월 16일 유네스코 키즈 3기의 해외 현장 학습을 알리는 발대식이 열리던 날, 부모님과 함께 명동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그 어느 때 보다 들떠 있었다.

지난 8월 캠프 이후 다시 뵈게 된 민동석 총장님을 비롯한 신미아 팀장님, 한명희 선임 담당관님, 김현철 담당관님, 친 누나, 친 형 같았던 이승민, 윤상운, 김혜진, 김수진, 김수민 멘토 선생님들, 그 누구보다도 다시 보고 싶었던 우리 3기 친구들의 얼굴을 보자 너무나 반가웠다.

특히 민 총장님께서 “여기에 함께 모인 부모님들과 수많은 스텝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곳에 있다”라고 말씀 하실 때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이 기회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이 교차되는 것을 느꼈다.

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안전 교육 및 현장학습 유의사항 등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이번 해외현장학습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섞여 내 마음은 이미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태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 날 국제 청소년 센터에서 우리들은 조별로 혹은 전체가 함께 모여 준비 모임을 가졌다. 태국 학교를 방문하여 보여 줄 춤과 노래 등을 연습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드디어 17일 오후 우리 일행은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6시간여의 비행 끝에



태국에 도착한 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습기와 열기로 깜짝 놀랐다.

생각해 보니 내 모습은 대한민국의 겨울 차림 그대로였다.

‘30도나 되는 날씨에 내복이라니...’ 둘러보니 이미 한국에서부터 여름옷으로 바꾸어 입고 온 준비성 있는 친구들도 있었다. 확실히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는 태도는 내가 꼭 배워야 할 태도인 것 같다.

태국에서의 첫 일정으로 우리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노광일 대사님께서 태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외교관이 되셨는지 이야기 해 주셨다. 그중에도 “점점 범지구적인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뒤에는 주태국 대한민국 문화원에 다녀왔다. 문화원에서는 외교관이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셨다. 장서익 참서관님께서도 우리가 모두 ‘민간 외교관’이라고 하셨다. 또한 “개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외국에서의 예절을 지키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날 저녁에는 처음으로 토론을 했다. 토론 주제는 ‘세계시민이란 무엇인가’였다. 첫날이라서 그런지 토론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세계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민동석 사무총장님의 개인 면담 시간이 있었다.

사무총장님과 나는 외국어 꾸준히 공부하기, 세계적인 작곡가 되기 등의 약속을 하고 사진도 찍었다. 이 날 했던 다짐은 절대 잊지 않고 실천해야겠다.

둘째 날 아침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에 갔다. 그 곳에서는 유네스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 계시는 소장님께서 우리나라 분이시라는게 아주 자랑스러웠다.

점심을 먹고 나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유타야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타이족과 버마족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화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다음 날에는 UNCC에 방문했다. UNCC에서는 UN ESCAP의 삼샤드 아크타르 사무총장님은 우리들에게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전반적인 설명도 해 주시고,



UN마크가 새겨진 기념 모자를 직접 나누어 주시기도 했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만 듣고 보았던 UN의 여러 기관들의 모습을 직접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특히 UNEP의 직원 분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 1조 이승민 멘토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웠다. 나도 나의 재능을 잘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먼저 태국 사이남틱 학교에 갔다. 태국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들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삼 평상시 가볍게 여기던 단어공부에 대한 후회가 물밀 듯 밀려왔다. 점심으로 태국 전통 음식인 퐁양공과 볶음밥을 먹었는데 손님이 오시면 자주 대접하는 것이라 한다. 드디어 우리가 이 날을 위해 여러 날 연습하고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여 줄 때가 되었다. 아리랑과 야심차게 준비한 사이의 '강남 스타일'을 보여 주자 대단히 즐거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태국 동요인 '창창창'을 부를 때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함성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하는 일만큼 상대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깨닫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왕궁 방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 곳에 왕은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 선왕의 불미스러운 암살사건 이후 특별한 행사 외에는 모든 왕족들은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왕족으로 산다는 것도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문하기 전 왕국이니만큼 옷차림과 간단한 예절에 관한 주의를 듣기도 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어느 덧 한국으로 돌아 가야할 시간이 되었고 아쉽지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던 태국의 모든 사람들과 이별해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날까지 함께 동행하며 깜짝 놀랄만한 한국어 실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던 가이드선생님의 모습도 오래도록 기억날 것 같았다.

밤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 오는 내내 피곤하긴 했지만 잠이 오진 않았다. 이번 현장학습에서의 추억이 여러 장면으로 스쳐 지나갔다.



한국으로 돌아와 해단식을 마친 후 우리 모두는 쉽게 유네스코 회관을 떠나지 못했다. 밤새 이야기 하고 함께 몇 날을 보낸 것도 모자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몇 번씩 주고 받았다. 아마도 이번 해외현장학습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태국 방문 이후 내게 새롭게 생긴 버릇 중 하나가 수시로 태국 소식을 검색해 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녀간 며칠 후 그 곳 날씨가 영상 10도 까지 떨어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방콕의 사이남틱 학교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남의 나라의 소식이 어느새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쩌면 이것이 ‘세계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서 보고 만져 본 곳, 내가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은 절대 남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 현장 학습 이후 내 자신과 약속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기와 전 세계 곳곳을 다녀보기이다. 나의 꿈은 인종, 종교,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는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는 세계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내 딛을 수 있게 도와 준 유네스코 해외현장학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노경평

2015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3기 유네스코 키즈로서 여름 세계 시민캠프와 자기 주도 학습 그리고 겨울 해외 현장학습에 참여하여 세계 평화를 꿈꾸는 나의 꿈을 향한 가슴 벅찬 소중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 이천 유네스코 평화 회관에서 열린 세계 시민 캠프에서 유네스코의 역할과 나눔의 정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평화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에게 멀게 느껴졌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세계시민이 되어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모의 총회 때 나는 프랑스입장에서 제 1위원회의 주제인 원자력 핵 발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정하여 조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반박하는 의견과 질문을 받으면서 각 나라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잊지 못할 멋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영어실력을 쌓아서 영어로 연설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진짜 유네스코 총회에 참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박 5일의 유네스코 여름캠프가 끝나고 유네스코 키즈로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때 해외현장 캠프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꿈인 것 만 같았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도 잘하고 유네스코 키즈로서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유네스코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국제 사회 문제와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제출한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읽고 보충할 것들을 자세하게 다시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6일 해외 현장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유네스코 회관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또 다시 기쁨과 설레 임이 느껴졌습니다.

발대식에서 “해외 현장 학습을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고 마음에 결심을 하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해외 캠프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은 나의 꿈에 가까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해외 현장 학습으로 갈 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태국어도 해 보았습니다. 약간은 어려웠지만 매력도 있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운 열기가 가득해서 더운 나라임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주 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대사관에서 하는 정치, 경제, 교육에 관한 일과 외교부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버스로 이동하여 한국을 알리는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는데 태국에서 보는 한국의 문화는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유네스코 방콕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145명중 7명이며 유네스코 방콕사무소는 아시아 태평양 교육본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분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 이동 장소는 아유타야로 태국에서 유명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데 부처님의 머리가 많이 없어지고 훼손되어 있어서 안타까웠고 유명한 문화재가 잘 보존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일째에는 UN ESCAP에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말 멋졌습니다.

삼샤드 아크타르 UN ESCAP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외교관입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어린 외교관의 역할을 꼭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삼샤드 아크타르 사무총장님께서 주신 금색으로 유엔마크가 새겨진 모자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에 나의 꿈을 표현할 때 유엔마크가 그려진 곳에서 연설하는 그림을 자주 그렸



있는데 UN ESCAP에서 직접 보니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태국의 유네스코 학교를 방문하여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 파트너는 '튜나미'라는 친구였고 그 친구는 나에게 태국 춤을 가르쳐 주기도하고 퐁얌콩이라는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태국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연습한 춤과 노래를 자신 있게 보여줬습니다.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태국학교에서 생활이 길지는 않았지만 태국 친구의 학교생활에 대해 그리고 태국 문화를 직접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진도 찍고 이메일 교환과 선물 교환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마지막코스로 왕궁으로 향하였는데 도착하여보니 왕궁이 온통 금색으로 덮여있어서 화려함에 놀라웠고 에메랄드 사원에서 에메랄드로 된 불상도 보았는데 정말 멋있어서 태국의 건축과 종교의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태국을 떠난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유네스코 키즈로서 여러분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여러 방법으로 꼭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시는 유네스코 민동석 사무총장님과 손가락 걸고 엄지 찍고 약속한 외국어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세계무대에서 나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꼭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해외현장학습은 UN 사무총장이 되는 나의 꿈에 한걸음 나아가서 꿈을 확실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고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기 유네스코 키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인성을 가진 유네스코 키즈로 앞으로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고 유네스코 활동을 꾸준히 하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키워주신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멘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학습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준 친구들과 형, 누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유네스코 키즈 화이팅!!!







문준서

나는 이번 해외현장학습을 통해서 확실한 목표 2개가 생겼다. 첫 번째는 영어,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해외현장학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인 것 같다. 지금부터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못한 외국어 공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봤으면 좋을 것

두 번째 목표는 나의 목표와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다. UN에서도 여러 기관이 있다. 우리가 가본 UNEP, UN ESCAP에서 하는 일이 각각 다르다. 또 이러한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UN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면 UN 중에서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만약 일하고 싶은 곳이 UNEP라면 UNEP에서 일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나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지금 당장 실천해본다. 그리고 지금이나 일을 할 때에도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것 역시 바로 실천에 옮길 것이다. 아직 이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것이다.

해외 현장학습에서 생각한 것뿐 아니라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우선 첫날에는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가 뭔지 몰랐다. 그냥 비행기 오래 타고 태국 도착해보니 피곤했고, 졸렸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차를 탔고, 버스가 움직이고, 애들은 떠들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해보고, 정말 가끔씩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앞으로 별로 얻을 것도 없고, 기억에 남지도 않는 여행일 될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에서 하는 일을 들어보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가슴에 와 닿는 말들이 들렸고, 정말 오래 생각하게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곳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저 분은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질문해보고 싶었지만 망설여져서 손을 들지 못하다가 그대로 질문시간이 끝났는데 나오면서 질문을 못한 아쉬움이 생겼다. 대한민국 문화원에도 방문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곳에서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는 말이 해외현장학습을 할 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토론을 할 때에는 애들과 진지하게 얘기 해보고 나의 의견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주제는 세계시민이란 어떤 사람일까 인데, 내가 생각한 세계시민에 대해 얘기 해보고 들었는데 내 의견이 괜찮은 의견인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앞으로 창의력을 조금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애들이 같이 떠들고 놀 때와 다르게 대단해 보였고, 이런 아이들과 같이 왔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에는 아태 본부를 방문했는데 아태 본부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이곳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나의 목표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아유타야 신전에 갔는데 사진으로만 봤던 아유타야 신전을 방문해보니 정말 감흥이 남달랐고, 태국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고, 왜 만들었는지도 궁금해지고 올라가면서 이 신전을 만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날에는 첫날에 생각했던 생각들이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라졌다. 4일차 되는 날에는 UN ESCAP와 UNEP에서 하는 일에 대해 들어봤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았다. 그 많고 중요한 일들을 들어보면서 아까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이런 곳에서 일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외국어 공부라는 통일되는 단어, 문장이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외국어 공부를 하면 좋겠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외국어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하는 생각도 들었다. 또 정말 높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UN ESCAP사무총장님의 말씀도 듣다 보니 내가 정말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고 저런 자리가 아니더라고 세계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이런 곳에서 UN ESCAP사무총장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니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자리에서



으면 하는 마음도 생겨났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잠을 잤다. 이제는 마지막 날이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집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과 이제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교차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방콕 학교에 도착했다. 방콕 학교에서 애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을 느꼈다. 태국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잘한다. 그런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는 태국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태국 문화도 알아보고 과학 실험, 미술 수업도 들었다. 방콕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태국 문화에 한발 다가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았다. 다음에는 왕궁에 갔다. 왕궁은 정말 멋있었다.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되어있었고, 정말 많은 역사가 담겨 있었다. 아유타야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도 느꼈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갔지만 답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질문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생각에 내가 좀 한심해 보이기도 했다. 결국 출국 날이 되었다. 인천에 도착해서 해단식을 하는데 정말 많이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배우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돌아가볼 걸... 또, 그래도 많은 경험을 했다. 등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본 것은 처음에 말했던 두 가지 목표와 두 가지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다. 이번 현장학습을 계기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하고, 내가 생각해도, 우리 가족이 생각해도 뿌듯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토론 시간을 3번 했는데 1번만 적은 이유는 토론 시간에서 느낀 점은 따로 적고 싶었다. 토론 시간에서는 토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토론을 하면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과 소통하는 방법을 느낀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토론이 끝나고 민동석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대입해서 생각해보니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점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갑작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이번 현장학습이 끝나고 돌이켜보면 이렇게 대단한 아이들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다짐을 안고 갈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의 생각과 다짐을 하게 해준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분들도 내가, 우리가 잘 되길 바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이다. 나는 이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다짐했던 일들을 지키고 생각해왔던 일들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확신을 가질 때까지 생각해서 답을 찾고, 노력해서 세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힘들 것이고 될 것인지도 모르고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아선

유네스코 키즈 해외현장학습으로 태국 방콕에 가서 5박 6일동안 지냈다. 나는 내가 1200명 중 선발된 100명 중에서도 훌륭하다고 뽑힌 25명 중에 한 명 이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다. 주태국한국대사관이란 한국문화원도 방문하고, 세계 문화유산인 아유타야

도 가보고, UN ESCAP과 같은 국제기구도 방문하고, 실제 국왕님께서 머무르셨던 왕궁도 둘러보는 등 정말 의미 있는 체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나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 태국 학교에서 태국 친구들과 문화 교류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한번도 다른 나라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나라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서 그런지 더욱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준 태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고맙웠다. 특히 태국 친구들이 보여준 아름답고 놀라운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 정말 고맙웠다. (태국 학생들의 공연에 비하면 우리의 공연은 너무 약소했던 것 같다^^)나의 버디는 '마띠'라는 11살 여자아이였는데, 다른 태국 아이들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좋았다. 마띠의 교실에 같이 가서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금방 친해졌다. 헤어질 때 아쉬워서 나는 마띠에게 꼭 메일을 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태국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과 교육 환경 등도 체험해 보고 많은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뻐다.

또 이번 체험학습에서 들은 조언들 중 가장 마음 깊이 새겨들었던 조언은 바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에 대사님들, 사무총장님, 국제기구 직원 분들 모두 하나같이 외국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외국어 공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의 공식 언어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렇게 6개국어 라고 한다. 나는 이 언어들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까지도 다 공부하고 싶지만, 우선 공부하고 싶은 언어는 이미 하고 있는 영어와 중국어를 제외하고, 스





페인어와 불어이다. 이 4개의 언어만 잘해도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훨씬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사귄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멘토 선생님들께서 외국어를 잘하시는 모습과, 친구들이 외국인 강사님께 영어로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20~30년 뒤에 외교관을 하고 있을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선생님을 하고 있을지, 디자이너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 외국어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이런 말이 농담같이 돌아다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열정과 목표, 끈기만 있다면 늦은 때란 없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외국어를 한다든지 하는 훌륭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유네스코 3기 친구들은 일단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넘쳐난다. 아유타야를 갔을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두들 힘들어 했는데, 자기도 지칠 텐데 어떤 오빠가 친구들한테 부채질을 해 주는 것을 봤다. '와..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 앞에 어떤 오빠 때문에 잘 못찍었는데 오빠가 자신이 설명을 듣지 못하는데도 사진을 찍으라고 뒤로 비켜줬다. 그리고 언니들과 친구들도 모두 밝고 적극적이어서 우리 조 뿐만 아니라 다른 조끼리도 금방 친해졌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5명은 검증된 사람인 만큼 정말 성격도 좋고 똑똑한 친구들인 것 같다. 이런 친구들,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너무 친해져서 그런지 캠프가 끝나고 지금까지도 단체 채팅방에서 끊임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키즈 해외현장학습은 정말 여러모로 특별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다. 1,2기 선배님들은 파리로 해외현장학습을 갔지만, 우리 3기는 예기치 않은 파리 테러로 인해 선생님들도 모두 해외현장체험으로 처음 가보시는 태국 방콕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또 태국으로 가게 된 덕분에 예산이 남아서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었으니까^^) 생전 처음 가보는 국제기구들, 대사관 그리고 태국 학교, 아유타야와



왕궁 등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새로웠고, 흥미로웠고, 유익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년에 다시 한 번 오고 싶다. 우리 3기 학생들, 멘토 선생님들, 사무총장님과 관계자분들 모두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번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다짐한 것이 3가지 있다. 이 3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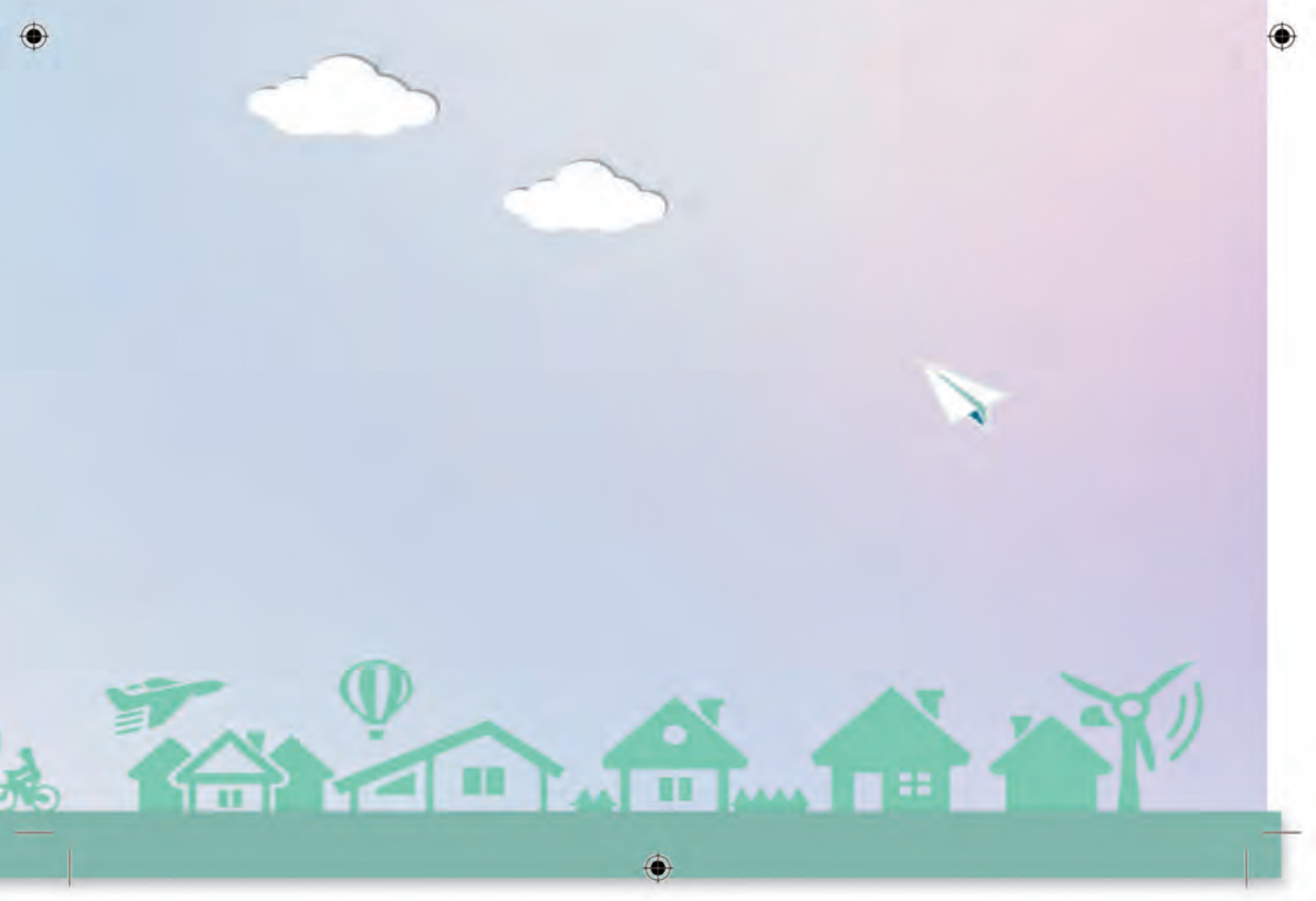
1. 외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외고도 나오고,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칠 것이다. (특히 영어, 중국어)

2. 독서를 많이 해서 어휘력도 늘고, 생각의 폭도 넓힐 것이다.

3. 주변 정리부터 생각 정리, 마음 정리와 같은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것이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이 유네스코 해외현장학습이 나의 인생에, 이 대한민국에, 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우리가 유네스코입니다!”





이익경

방콕으로 해외현장학을 다녀온지 일주일 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거울을 보며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실 실 웃고 있는 저를 봅니다. 파리테러로 해외현장학습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었기에 저는 방콕으로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 섭섭한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께서 프랑스 못가서 속상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가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방콕 해외현장학습은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발대식을 마치고 숙소에 와서 이름표 뒷면에 있던 일정을 보고 스케줄이 가득 차 있어 바쁘다는 것이 내심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맞바람의 영향으로 비행시간이 늘어나고 도착한 방콕은 때때로 교통체증이 심각했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현장학습은 즐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밥’도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방문해서 우리 교민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대사관의 모습도 보고 노력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대사님의 멋진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성의 중요성, 그리고 사무총장님께서 늘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인 외국어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말씀을 대사님도 강조하셔서 한국에 돌아가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문화원에 방문했을 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토론 및 활동 시간에 ‘세계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한 것도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를 견학하면서 국내, 국제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태국의 역사적인 문화 유적지 아유타야에서의 일정이 5시간 이었는데 가는데 2시간 30분 관람 30분 오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가서 목 잘린 부처상도 보고 나무사이에 있는 부처님 얼굴도 보고 재미있었지만 너무 짧은 관람시간이 아쉬웠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토론 및 활동의 시간도 좋았지만





저녁마다 방에서 배개싸움도 하고 각자 학교생활, 현장학습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진실게임(?)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UNCC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UNEP이 환경을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UNEP의 활동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열리는 세계적인 환경회의인 TUNZA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해외현장학습 다녀온 후 서울 대학교에서 열린 2016 세계청소년지구환경포럼에 참석했었는데 포럼기념품으로 나눠준 볼펜에 TUNZA Eco-generation이라고 써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생하게 UNEP의 활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 직접 UNEP을 방문한 저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가장 기대했었던 방콕 유네스코 학교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전 Dee라는 친구의 버디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학교의 친구들은 각자 자기의 명함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아리랑을 부르고 창창을 울동과 함께 부르고 강남스타일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주며 환하게 웃던 Dee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짧은 시간이나마 농구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진짜 그립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방콕 문화유산 왕국에 가서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금으로 뒤덮인 왕궁 건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민동석 사무총장님과 저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들으시고 사무총장님께서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교육, 과학, 문화이므로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과학을 발전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총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외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총장님과 손가락 도장을 꼭 찍으며 이제 중학생이 되니 시간을 아끼며 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방콕에서의 일정이 꿈만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행복한 꿈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민동석사무총장님, 신미아팀장님, 한명희담당관님 그리고 같이 해외현장학습에 동행 해주신 여러분들과 윤상윤멘토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후원해주신 기아자동차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친구가 될 3기 모두 화이팅입니다!!!





## 해외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이 캠프를 통해 무엇이 되고 싶었는지 몰랐던 내가 평등이나 문화, 세계시민의 정의, 인권 존중 등...을 배우며 꿈을 이루고 세계 시민이 되는 길에 첫 발자국을 찍게 되었습니다.

정재윤

세계 속의 나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하는 세계 속의 우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정시우

이번 견학은 '연필깎이'였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인 걸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를 깎아 버리고 민동석 총장님과 개별 면담과 같이 내 안의 진짜 모습인 '연필심'의 모습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연필심은 다이아몬드의 성분과 같으니까 이번엔 찾게 된 내 모습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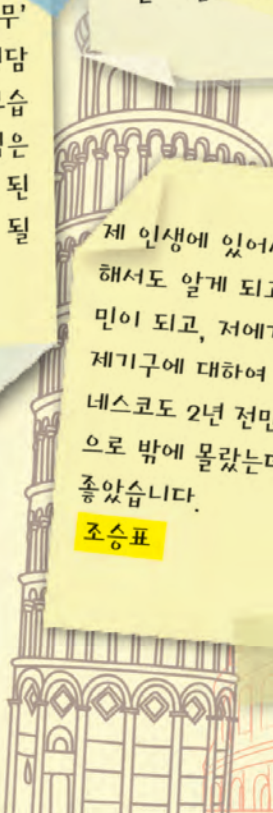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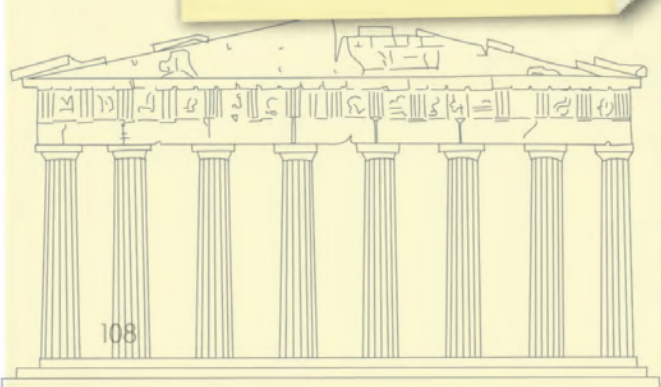
문수연

'다짐'만 하는 어린이가 아닌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박주석

제 인생에 있어서, 세계시민 교육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교육을 받아 세계 시민이 되고, 저에게는 생소했던 여러 국제기구에 대하여 잘 알게 해주었고, 유네스코도 2년 전만 해도 세계 문화 유산으로 밖에 몰랐는데, 더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조승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계적  
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라는 민동석  
사무총장님의 말씀처럼, 꿈을 이루  
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이다.

김승연

이제 나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꿈  
꾸며 멋지게 날아오를 것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라는 말처럼  
높이 날기 위해 나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송영서

이번 캠프가 나에게서는 나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더 유익하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잊지 못할 캠프  
프이었던 것 같다.

최수호

이번 캠프 동안 가장 실천해야겠다고 느낀 것  
은 바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캠프 기간 동  
안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외국어,  
특히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주셨다. 나의 최근 꿈이었  
던 외교관의 필수 조건도 외국어 여러 개를 하  
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더라도 유  
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준비를 할 것이다. 또  
관찰력과 판단력을 키우고 뉴스, 신문 등을 보  
면서 세계의 일에 호기심을 가지며 전부터 하  
고 있던 기부와 봉사를 통해 유네스코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서희진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느끼고 내 진로에 대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직업이든지 좋고 나쁜 것을  
받아드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백경은

